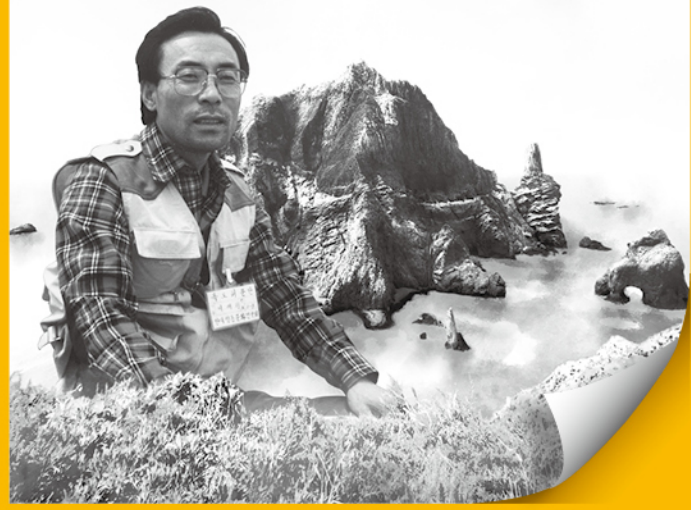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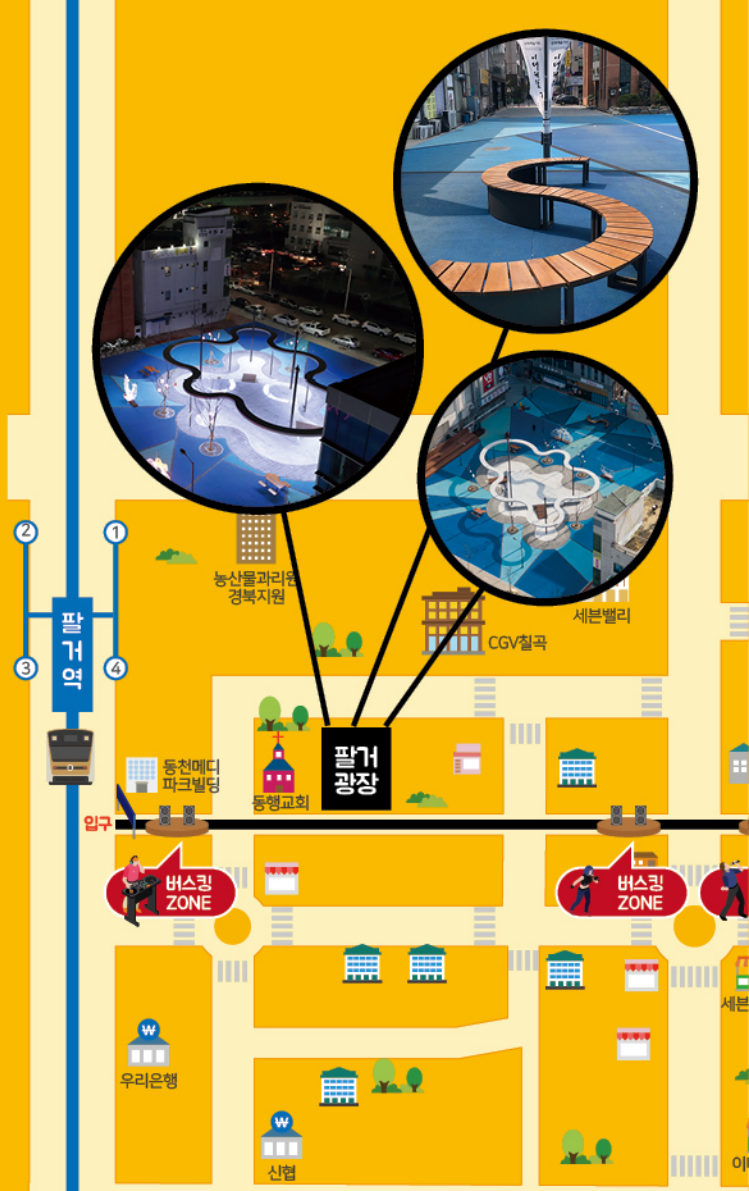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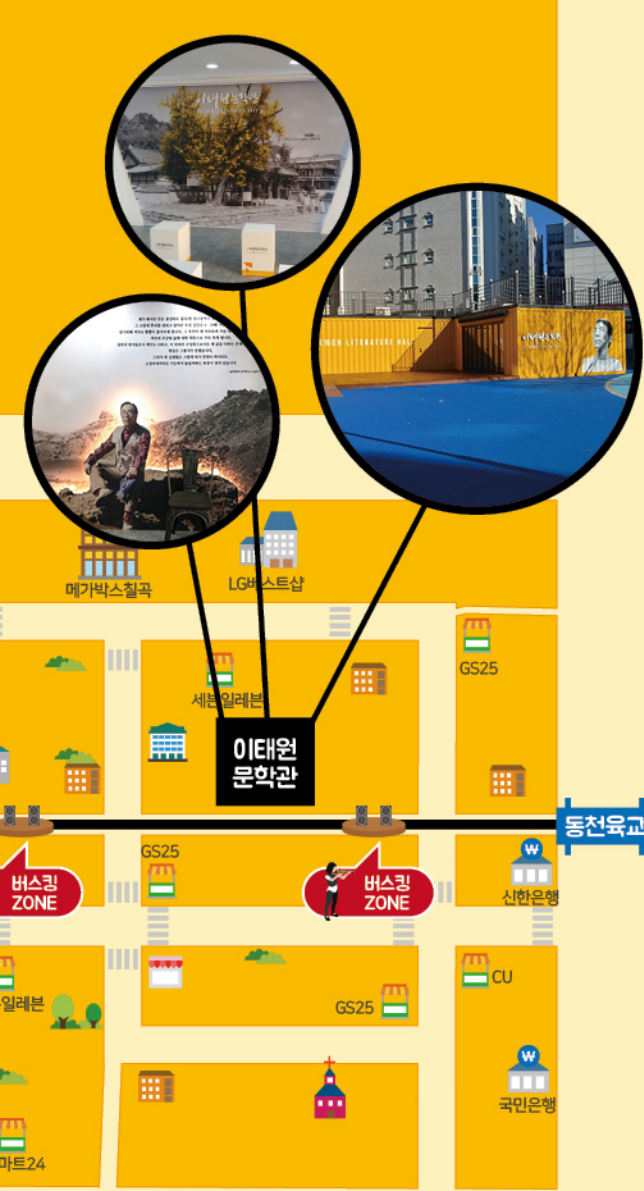
고향은 지금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사실이라는 듯 몰라보게 달라져 있고. 또 쉬임 없이 달라져 가고 있다. 옛날의 산과 들. 개천과 둔덕. 길과 집. 사람과 숨결이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다. 오죽했으면 칠곡이란 지명도 없어 졌을까. | 객사 작가의 말 중 |




문화와 문화가
잇는 거리
이태원길



행복북구문화재단 | 북구청 관광과
053)320-5122 | 053)665-4322 ~ 6



오시는 길 
 도시철도 3호선 팔거역 ~ 동천육교
 도시철도 3호선 팔거역 4번 출구
 버스 칠곡1-1, 칠곡4 - 팔거역4 정류장 하차
 자가용 대구강북경찰서 뒤편 공영주차장

1 소설가 이태원

이태원(李台元, 1942~2009)

일제 강점기 말 1942년 옛 칠곡군 칠곡면 읍내동 교동 부락(현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에서 출생한 이태원은 1955년에 칠곡초등학교를 졸업(42회)하고, 1961년에 경북중고등학교를 졸업(42회)하였다.

이태원이 누구인가?

글재주가 뛰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방문화지에 응모한 단편소설이 당선돼 소설가로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장돌림이나 잡역부의 생활을 하며 서민들의 밑바닥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차근차근 문학적인 기틀을 잡아가게 되었다.

- 1942 ○ 경북 칠곡군 칠곡읍(현 대구)에서 출생
- 1961 ● 경북 고등학교 졸업
- 1970 ● 『동아일보』 창간 5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 「객사」가 당선되어 등단하다.
- 1978 ● 장편 「개국-전7권」 연재 시작. 이 작품은 완간된 후인 1984년 KBS-TV에서 51부작 대하드라마로 각색 방송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 1993 ● 장편 「낙동강」 영웅 간행.
- 2007 ●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PEN,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
- 2009 ○ 3월 8일 작故



2 소설 「객사」

문단 사상 초유로 국립극단과 세TV 방송국에서 특집극으로 방영된 초대형 작품.

- 국립극단 3·1절 기념 연극으로 전국 순회공연
- KBS-TV 3·1절 특집 드라마로 방영
- MBC-TV 광복절 특집 드라마로 방영
- TBC-TV 광복절 특집 드라마로 방영



1970년 문단 데뷔작인 “객사”는 작가의 고향 칠곡의 향교를 중심으로, 기층 민중들의 고단하고 참혹한 삶과, 부단하게 짓눌리는 서민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동학혁명에 남편을 바치고 신분을 천민으로 숨기며 종과 함께 살아가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칠곡 객사 사람들”이란 제목을 바꾸어 쓴 것이다. 개인이 갖는 역사적의식, 민족이 갖는 소명 의식, 이런 것들이 식민지 통치라는 정치폭력에 한 점 부끄러움없이 의연히 맞서, 처절한 삶을 통해 승화시킨 작품이며, 찰진 문장과 톱니바퀴 같은 구성력, 생생한 인물상 등은 시대를 초월해 오랫동안 읽히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원로작가들이 평한다. 한 작품이 연극무대를 거쳐 국내 세 방송사에 의해 각기 다른 형태의 특집극으로 제작되어 방영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며, 문단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소설가 이태원의 장편소설 「객사」의 당선관련 신문기사 (출처=동아일보 [1970년 12월 28일자] 석간 5면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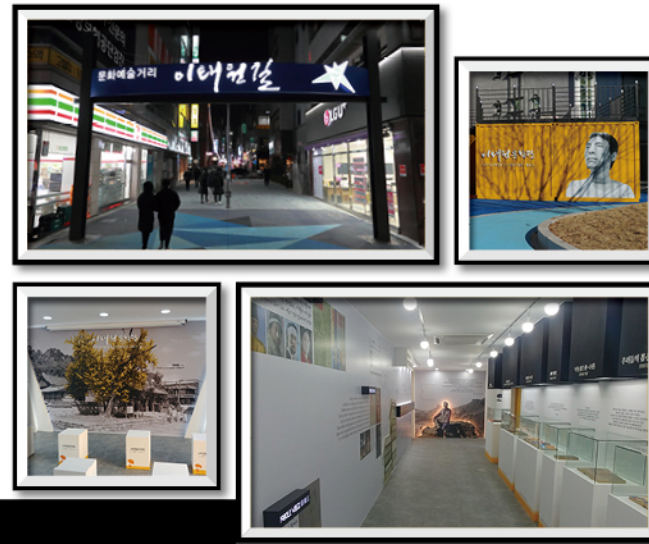
3 이태원의 문학 길, 이태원길!

대구 북구에 '이태원' 이 있다고?

작가의 고향이자 소설 「객사(客舍)」의 무대이기도 한 칠곡 읍내동에 작가를 회상하고, 문학의 흔적과 발자취를 기리며, 소설 속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겪고 나누어 온 사람들을 기억하는 문화예술거리 '이태원(李台元) 길'이 조성되었다.

소설가 이태원은 “객사”, “낙동강”, 그 외 소설에서도 작품의 주인공을 폄박받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민초로 등장시켜, 세상의 부조리와 그에 맞서는 작가를 대변한 이야기로 엮어나갔다. 북구의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은 작가가 객사라는 작품 속에서 녹여내고자 한 공간을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타 지역의 거리와 차별성을 두었다.

그러나 단지 고향의 작가를 추모하는 거리보다는 선대의 문학작품 속에서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는 등장인물들을 만나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며 문화와 예술을 만끽하는 현대 문화시민의 소중한 거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4 이태원이 남긴 작품

- 장편소설** | 객사, 개국 - 7권, 낙동강 - 3부 15권으로 1부 5권까지 출시, 0의 행진, 초야, 꿈꾸는 버러지들, 가로등 등 10편
- 중편소설** | 유아무야, 우리들의 봄춘자, 단양아리랑
- 단편소설** | 밤길, 졸고 있는 말, 돌을 던져라, 사명, 우리들의 죽음, 하늘이여 땅이여 - 인터넷 연재소설, 향가 등 20여편



소설 「객사」
1970년 문단 데뷔작인 “객사”는 작가의 고향 칠곡의 향교를 중심으로, 기층 민중들의 고단하고 참혹한 삶과, 부단하게 짓눌리는 서민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소설 「개국」
1978년의 “개국”은 전7권의 대하소설로 역사의 부조리에 맞서 민주화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며, 1983년 KBS-TV에서 대하드라마로 방영되고, 시청률이 아주 높아 42세의 나이로는 아주 파격적인 원작자가 되어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소설 「낙동강」
1980년대에 대구매일신문에 연재한 대하소설 “낙동강”은 3부 15권으로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을 배경으로, 조선말기 어지러운 시대에 꽃꽂이 맞서며 절개와 의기를 지켜내려는 영남의 유림들과 주변 민초들의 피눈물나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